

① 고흥 감염 오리 분변·깃털 날리며 80km 이동

커지는 AI 확산 공포 왜?

전남에서만 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특히 이번에 확진된 고흥 동강면 AI는 사육농장이 아닌 80km 떨어진 나주 금천면 도축장에서 검출되면서 방역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염 오리 분변·깃털 날리며 80km 이동했다=지난 1일 발생한 고흥 동강 AI는 사육농장이 아닌 도축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사육농장에서 감염된 오리가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도축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설명대로라면 고흥 동강면 농장에서 감염된 오리를 생체운반차량에 싣고 나주 금천면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까지 80km를 이동했다는 것이다.

생체운반차량은 120케이지로 구성됐다. 케이지방 오리 15마리를 넣어 운반하

② 이동 승인서 한번 발급하면 1주일간 사용

③ 샘플조사도 적어... 방역시스템 재점검 필요

기 때문에 차량 1대에는 1800마리를 운송하게 된다. 밀집된 탓에 감염 전파도 빠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나치게 밀집된 탓에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생체운반차량은 차단망을 씌우지만 오리 분변과 깃털이 새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염된 오리를 싣고,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분변과 깃털을 날리며 고속도로와 국도를 80km 달렸다는 뜻이다.

지자체 한 방역 담당자는 "생체운반차량은 모두 거점소독시설을 거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차량 소독 중심이어서 오리생체 소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리사육농가 한 관계자는 "오리 분변은 묶어 도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로

에 떨어진 분변은 일반 승용차에 묻어 전파될 수 있다"며 "AI 확산을 농가 책임으로만 돌리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동승인서 한번 끊으면 일주일간 사용한다=이동승인서 발급에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에서 AI 검사를 통과하면 이동승인서가 발급되는데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고흥 AI의 경우도 지난달 28일 검사에서 AI 음성 반응이 나와 이동승인서가 발급됐고, 도축장으로 이동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특히 이 농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오리농가와 반경 2km내에 자리하고 있어 방역지역(500m~3km)에 해당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3일전 발급받은 이동승인서를 사용한 것이다.

나주시 한 관계자는 "나주는 AI가 발생

하면 3km내 오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며 "고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승인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4000마리 중 20마리 샘플검사 신뢰할 수 있나=검사 방식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검사 매뉴얼에 따라 농장 검사의 경우 1개 사육동 당 20마리를 샘플로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고흥 농장의 경우 8300마리를 2개동에서 사육했기 때문에 4150마리당 20마리(0.5%)를 샘플 검사한 것이다. 샘플조사를 20마리로 한정할 것은 검사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중 0.5%에 대한 샘플조사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를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샘플을 확대해 좀 더 촘촘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늦어도 2월 초 광주시장 출마 여부 밝힐 것”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지역 의견 수렴해 결정”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늦어도 2월 초순께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상 공직사퇴시한인 오는 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때까지는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국가나 시민에게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다양한 시민의견 듣고, 2월 초순까지는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3년간 2번의 청장, 2번의 장관, 2번의 국회의원을 시켜준 곳은 광주”라며 “시민이 이용섭을 사랑한 최상의 ‘신의 한 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 시킨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낙선 이후)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장할 시간을 가졌으며, (시민에게)감



사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위원회를 그만두고 출마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는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께 얘기 드린 적은 없으며 때에 맞춰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출마보다는 중앙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여론도 알고 있으며,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떤 결정이 바람직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는 경제적 낙후가 지속하면 정치소외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200만 대도시를 만드는 것이 광주의 시급한 목표이고 가장 중요하며 거기에 봉사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해엔 꼭 담배 끊어야지” 3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새해를 맞아 금연하려는 흡연자들이 북적였다. 보건소 직원들은 이들의 폐활량을 잰 뒤 금연 방법을 조언하고 금연 보조장품을 나눠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철홍 전남도의원 담양군수 출마 공식 선언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3일 담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여명의 전남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원으로선 첫 출사표다.

박 의원(담양·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담양어민주당 담양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양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 도의원인 박 의원은 “취임 즉시 균형 이전을 추진하고 담양을 재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양인구 7만, 소득 3만 달러, 관광객 900만 시대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했다.

박 의원은 균형 7대 전략으로 ‘청춘농촌 활력도시 담양’, ‘자립경제 부자도시 담양’, ‘교육문화 인문도시 담양’, ‘생태힐링 체류도시 담양’, ‘행복복지 건강도시 담양’, ‘소통화합 상생도시 담양’, ‘직분충실 공직도시 담양’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민선 3기 담양군수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한편, 전남도의원 가운데 박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이 기초단체장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영산강 마한문화’ 개발 사업 본격화

10년간 6900억 들여 영암 쌍무덤·함평 방대형 고분 등 발굴

남도 고대문화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의 실제 규명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최근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동안 6911억원을 들여 3단계,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 1635억원, 도비

634억원, 시·군비 612억원, 민자 4030억원이다.

사업은 기반 조성기 10건, 확장기 3건, 성숙기 2건 등 단계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올해는 도비 4억원을 들여 5개 사업을 진행한다. 마한세력 중심지 영암 시종면 최대 고분인 내동리 쌍무덤, 함평 고대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함평 대동면 금산리 방대형 고분을 집중 조

사·발굴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산강유역에 분포한 마한 유적 현황을 조사해 분포지도 제작하고 중요 유적 조사를 위한 기초작업도 진행한 다.

오는 3월에는 가칭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출범하는 민선 7기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육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고대 전남에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한이라는 고유한 문화가 존재했지만,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보존과 정비가 소홀했다”며 “마한의 실제 규명에 중점을 두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운영위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돼 조만간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조사·연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3.5t 폐기

광주시가 지난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3.5t이 넘는 농산물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된 농산물 2914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금치, 알타리무 잎 등 4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무게로 보면 3542kg(1.4%)으로, 이들 농산물은 모두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하도매 시장에 경매를 받기 위해 반입된 농산물 1764건과 지역 대형마트와 시장, 로컬푸

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 1150건을 수거해 208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시금치가 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타리무잎, 깻잎, 취나물(각 4건), 부추, 상추, 썩갠, 무숙을, 대파(각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가 각 7회로 가장 높았다. 디니코나졸, 페니트로티온이 각 4회,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프로사이미돈 각 3회가 적발됐으며, 모두 살균제, 살충제였다. /윤현석기자 chadol@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워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